



# 정해진 각본이 없다, 그래서 어렵다

## 시각예술 구술사 연구자들의 내부회의 참관기

추상적이고 막연한 상상은 실상을 덮어버리곤 한다. 구술사 채록 연구자들을 괴롭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이를 살갓으로 느끼기 위해, 아르코예술정보관 시각예술 구술사 연구팀의 내부회의를 참관했다. 연구팀의 좌장격인 김철호가 회의를 이끄는 가운데, 일곱 명의 채록 연구자들은 각자가 겪었던 고민, 실수 등을 가감 없이 꺼내 놓았다. 특별한 초대 손님도 있었다. 오랫동안 구술사 작업을 해오며 '재미있는 구술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선정이 참석하여 연구자들의 고뇌와 열정을 함께 나누고, 경험에서 길어올린 조언을 진술하면서도 날카롭게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자아비판에 가까웠다. 그들은 솔직했고, 맹렬했고, 치열했다.

글 이혜정 편집부 | 사진 박정훈



아르코예술정보관 세미나실에 도착하니, 자리 배치와 프로젝터 설치가 한창이었다. 예닐곱 명이 모이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사람이 많다. 이날 회의의 참관자는 문화예술 편집부만이 아니었다. 보조 연구자들은 물론, 문학 구술사팀과 공연예술 구술사팀에서도 ‘놀러’ 왔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어서인지, 모이자마자 분위기가 금방 수다해졌다.

2008년 시각예술 구술사 연구팀은 아르코예술정보관의 객원연구원인 김철효를 비롯하여, 채록 연구자 강민기, 권행가, 문정희, 박계리, 신수경, 왕신연, 이정은, 이렇게 여덟이다. 이들 모두 한국 근현대미술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는 점은 같지만, 구술사 채록 작업 이력은 제각각이다. 오래 전부터 해온 이도 있고, 올해 처음 합류한 이도 있다.

작년까지 시각예술 구술사 연구팀은 특정 예술가들의 삶 전체를 집중 조명하는 ‘생애사’를 해왔다. 올해 처음으로 여러 예술가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들어보는 ‘주제사’를 시작했다. 올해의 주제는 ‘20세기 한국 전통 서화의 변모와 현대화’이다. 전통 서화가 한국화의 대표 장르이면서도 그간 심층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를 큰 뿌리로 삼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세부 줄기로 잡았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전통 서화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일본색을 어떤 방식으로 청산해왔는지, 전통 서화의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술자로부터 이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여기 모인 이들의 당면 목표이다. 내부 회의가 열린 시점은 올해 전체 일정 중 1/3 정도를 마친

즈음, 즉 연구자들이 각각 자신이 맡은 구술자 중 한두 명을 면담한 직후였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자, 연구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고, 약간의 긴장마저 흘렀다. 회의 진행은 연구자들이 차례로 앞에 나가 면담 때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면서 각자의 고민과 실수를 ‘고백’하면, 이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질문하거나 발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장장 4시간 동안 이루어진 열띤 회의는 저녁식사로까지 이어졌다. 이를 주요 장면만 간추려 재구성해본다.



**박계리 “선생님 대답이 자꾸 예측에서 벗어나서 당혹스러웠죠.”**

A 선생님이 워낙 단답이세요. 제가 “의식적으로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신 건가요?” 하고 질문하면, “뭐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 이리시고, “서양화하시다가 동양화로 바꾸셨는데, 특히 어떤 점이 달랐나요?” 하면 “다르긴 뭐가 달라? 그림은 다 똑같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웃음) 그게 정말 선생님의 솔직한 대답인 것 같긴 했어요. 자꾸 예측에서 벗어나서 당혹스러웠죠.

**장민기** 전 처음 B 선생님 뵈 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질문 드렸는데 생각보다 대답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때부터 더 당황한 거죠. 10분 정도 길이의 답변을 예상하고 질문했는데 2~3분만에 끝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뷰 도중의 5초, 10초는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웃음) 등에서 맘이 막 줄줄 흘렀어요.

이론과 실재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질문 드리면 그건 당신께서 대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제가 막 물고 늘어질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설정한 주제와 실제로 선택된 구술자가 잘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과 걱정도 들었고요.

**김선정**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하실 땐,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때 생활 좀 이야기해주세요.” 이리하면 “내가 그땐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질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수경** “제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땀을 줄줄 흘렸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정작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면담을 전부 마치고 편안하게 개인적인 궁금증들을 여쭙봤더니, 그때서야 술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면담할 때 “큰 작품하실 때와 작은 작품하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짧게 대답하셨는데, 면담 끝나고 제가 “어휴, 이렇게 큰 작품하실 때는 서서 그리세요, 앉아서 그리세요?” 이렇게 특 질문을 하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제 질문 자체도 바뀌고, C 선생님 답변도 많이 달라진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작품을 두고 얘기할 때 저의 주관적인 감정들이 개입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저게 느낌이 좋은데요. 어떤 터치로 하셨어요?” 하는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면담 과정에서 괜찮은 건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능하면 녹음에 제 목소리는 “네” 소리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질문도 나름대로 정해진 것만 하려고 했거든요.

**김철호** 그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면담자의 권한이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면담자가 편안하게 해야 구술자 답변도 편안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이게 다 선생님 작품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웃음)

**김선정** 오히려 딱딱한 질문을 하면 구술자 답변도 딱딱해져요. 추임새도 적당히 넣어주셔야 하는데, ‘네’ 소리도 안 하려고 한 건 잘못하신 것 같고요. (웃음)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구술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아요.

**신수경**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편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선정** 그렇죠.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셨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웃음) 충분히 개인의 감정을 넣으세요. 구술사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공동 작업이잖아요.

**신수경** 음... 또... 가끔씩 걱정스러웠던 게 저의 무식이 탄로날까봐... (일동 웃음, 공감) 제 느낌을 말하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요.

**김선정** (웃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서, 오늘 정말 워크숍답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은 그래요. 준비가 덜 돼서 모르는 부분이 드러날 때, 참 고민스러워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 뒤부터는 완전히 ‘가르침의 구술’이 되잖아요. ‘내가 한 수 알려줄게.’ (웃음) 그래서 그럴 때 고민스럽고, 어렵거든요.



**문정희 “개인 PR이 다소 강한 분에 대해선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D 선생님은 당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실제로도 세련되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 개인사 위주로만 진행될까봐 고민했어요. 화실에 찾아갔을 때도, 일부러 새 작품들을 입구에 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에 관한 이야기 뒤로 미루긴 했는데요. 개인 PR이 다소 강한 분에 대해선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강민기** 저도 선생님이 자신의 업적을 다소 과장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들어드려야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어느 선에서 적당히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 힘들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그 선을 넘나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거 같아요.



**김선정** 구술자가 개인 업적 이야기하실 때, 중간에 자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냥 들어드리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구술사는 역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사, 주제사로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의 삶에 관한 건 꼭 들어가야 해요. 구술자가 당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시면, 아예 빨리 명석을 깔아드리는 게 좋아요. 이야기 판을 키워서 즐겁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요. “이 그림은 최근에 새로하신 건가 보네요?” 이렇게 차라리 빨리 물어봐드리는 거죠. 너무 길어진다면, “선생님, 이 그림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원래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면, 하고 싶은 말들이 다들 있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집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빨리 다 풀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편한 상태에서 질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정은 “면담 시간이나 횟수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E 선생님은 자택이 지방이기도 하고 선생님 스케줄 문제도 있고 해서, 하루에 몰아서 2회분을 다 했어요. 1시쯤 가서 10시간 정도 선생님과 같이 있었어요. 식사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얘기가 충분히 됐어요. 흥이 고조되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원래는 시연도 안 해준다고 하셨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해주셨고요.

반면 F 선생님은 일주일의 가격을 두고 찾아보았거든요. 첫 면담 땀 앞으로 5회 더 하자, 10회 하자, 이리실 만큼 의욕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한번 맥이 끊어져서인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 만큼 선생님의 의욕을 제가 다 수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면담하는 방법과 하루에 몰아서 면담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관찰을지도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신수경** 저도 C 선생님을 두 번 뵈기로 돼 있었는데, 2차 면담 끝날 때 선생님이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집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런 것도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한 번 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던 건, 일주일이지나서 다시 가니까 선생님이 예전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질문도 더 알차게 준비했는데도.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라면 차라리 몇 회를 연달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계리** A 선생님은 50분 정도 얘기하시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쉬고 나서 다시 30분 더 하니 또 힘들다고 하시고요. 귀찮으셔서 그런 게 아닌 것이, 중간 중간 힘들니까 초콜릿 먹고 힘내겠다고 직접 챙겨 드시기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뵈는 것보다 체력이 현격히 안 좋아지셔서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면담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문정희** D 선생님도 초반에는 굉장히 의욕을 보이셨어요. 말씀도 또박또박 정제해서 하시고. 그런데 한 시간 지나면서는 확실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두 시간 후에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가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두 시간 정도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약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유 있게 하질 못했어요. 선생님 체력도 확연히 떨어졌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권행가 “촬영이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작품 사진 촬영이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 미술 쪽은 작품 사진 보면서 이걸 뭐였고, 저건 언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작품 사진이 함께 촬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동영상으로 구술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저도 면담할 땐 몰랐는데, 끝나고 촬영한 비디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현장에서 작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연구자들이 촬영자한테 신호를 줘야 하고, 사인을 정확하게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판 뒤적거리고 촬영에 신경 쓰다보면, 구술자와의 대화 흐름이 깨지더라고요. 제 결론은, 연구자가 도판 정리를 좀더 많이 준비해야겠다.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탁탁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정** 저 같은 경우는 구술자가 그림을 그리거나 지도를 설명하면, 우선 체크했다가 나중에 다시 촬영하거든요. 미술의 경우에는 대화의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요?

**권행가** 그림요. 특히 미술 분야는 그림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사실 그림 중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가령 좌측 하단인지, 우측 상단인지까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아예 없으면 힘들죠.

**이정은** 저도 촬영자한테 중간중간 몇 번이나 도판 촬영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테이프 교체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던데요.

**김철호** 그게 왜 안 돼요?

**이정은** 일단 ENG 카메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카메라 두 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위치를 고정시키면 움직이기가 힘든가봐요.

**김철호** 촬영자가 카메라를 삼각대에서 재빨리 풀어서 민첩하게 촬영하면 되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신수경** 도판도 도판이지만, 저는 작업실을 한번 쪽 스케치하듯 촬영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촬영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



시더라고요.

- 김철효**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 권행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테이프 시간이 다 되었다거나.
- 신수경** 아마 약속된 두 시간이 다 끝나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저는 작업실 이곳저곳 벽에 걸린 작품들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려웠어요. 앉아서만 한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어려웠고.
- 김철효** 이거 심각한 문제네. 촬영자가 두 시간 됐다고 딱 자르는 상황은….
- 김선정** 구술 현장 상황의 진행은 전적으로 면담자에게 전권이 있어요. 주위 상황을 다 통제해야 돼요. 시간이 연장되면, 뭐 스태프들한테 나중에 술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구술자 만나는 건 다시 얻기 힘든 귀한 시간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간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이 질문은 꼭 해야 되는데, 저 작품이 더 중요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연구자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 권행가**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딱 두 시간만 가능한가. 세 시간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너무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강민기** “일본색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계속 오해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G 선생님은 뇌일혈에서 깨어난 지 십 년이 지났는데도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장 심했던 부분이 ‘일본색’에 관한 거였는데, 일본색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 중 하나잖아요. 일본색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 계속 선생님 본인이 일본색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반복하다가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10분, 20분 후에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일본색 관련해서는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피카소라든가 서양의 영향에 대해 많이 얘기하셨고요. 결국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로, 이 시대 화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색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 서양미술의 흐름에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 했어요. 그렇게 정리한 후에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질문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추궁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선정** 일본색 외에 다른 질문들은 다 이해하셨어요?

**강민기** 다른 질문도 조금씩 잘못 이해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김선정** 그런데 만약 다른 질문은 다 이해하는데 특정 질문만 계속 두 번씩 오해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 그림에 일본색이 있다, 이런 평판이 요만큼이라도 날까 봐 완전히 방어막을 치는 것일 수도 있죠. 61년에 졸업하셨다고 하셨죠? 그때가 또 박정희 정권이 민족주의 교육을 엄청 할 때잖아요.

**강민기** 이분의 경우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고. 어쨌든 일제시대를 살아 온 분이기 때문에 일본색과 같은 질문에 긴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동 방어 같은.

**김선정**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대답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미술 분야를 잘 모르니까, 단지 오고간 질문과 답변만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래요. 왜 두 번씩이나 대답을 못 했을까. 그 시대 화가들이 일본색에 관심이 없었다고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술자가 일본색이라는 주제에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김철호**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김선정** 일본색에 대한 질문은, 미군 부인들한테 한국에서 직업이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하기 힘든 질문이죠. 저 같은 경우 그런 질문은 그냥 안 하거든요.

**문정희** 그래서 사실 우리도 사전 회의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하기로 했잖아요. ‘일본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철효** 그렇지.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런데 그렇게 질문해도 오해를 하셨으니 뭐….

**김선정** ‘일본색’이라는 말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는 세대가 그 세대잖아요. 다른 차원의 질문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각도를 바꿔서.

**강민기** 제가 드린 질문이 그런 식이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원천봉쇄 됐어요.

**이정은** 제가 만난 F 선생님은 정치와 연결 짓는 경향이 강하셨어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혹시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가 왜 정권이 바뀌니까 날 찾지?” (좌중 웃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점 때문에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 권행가** 정치의식이 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이정은**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학생 때도 학생회장을 하셨대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분의 사고방식이랄까. 예비면담 때도 사실 굉장히 난감했어요. 처음 뵙는 자리인데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첫 면담 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주일 뒤에 두번째 면담을 하러 갔는데 첫 면담 때와 태도가 많이 다르셨어요. 제 생각에 처음 면담하시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첫날 신이 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주셨는데, ‘내가 이정은이라는 애의 정치 성향도 모르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의도도 모르는데 나쁜 얘기 하고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전혀 나쁜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더 과격한 얘기도 하시는데.
- 김철호** 혹시 무슨 옥살이를 하셨다거나? 그 당시엔 학생회장들이 대개 운동권이었잖아요. 피해의식을 가질 만한 경험이 뭔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 김선정** 월남하신 집안이라든지...
- 이정은** 유년시절의 얘기부터 쪽 들었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 김선정** 고향이 어디세요?
- 이정은** 이천이요.
- 김선정** 아, 고향이 이천 쪽이면 그럴 수 있죠. 거기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 마을’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계시는 것일 수 있죠.
- 이정은**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셔서, 더 예민하신 걸 수도 있어요.



**왕신연** “보통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H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제 지도교수님이시기도 했어요.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죠. 선생님도 10년 동안 절 보아오신 터라, 저를 많이 배려해주시면서 자료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화단의 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주셨습니

다. 또 후배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조금만 말씀하시고 미술계의 문제로 넘어가셨어요. 퇴직하신 선생님들의 공통점 같기도 한데, 한국 미술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 등으로 얘기를 끌고 가셨어요. 제가 제지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증물에 관한 건데요. I 선생님은 아드님 작품이 실린 잡지나, 사모님이 쓴 시집을 주시면서 갖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문화 전반에 관련된 거니까 받긴 했는데, 이런 자료까지 받아와도 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김선정**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또 다른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구술이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이 가지지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봤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도 어쩌면 제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자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요. 구술할 때 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대체로 그렇죠. 이번 경우는 제자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미술계에 대한 건의사항들은 그것만 모아도 하나의 논문이 되겠는데요.

**김철호** 그런 건의사항도 미술계를 보는 그분의 시각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나 부인의 자료도 구술자의 환경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조명할 때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전에 일본 사람들 자료 수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말도 못해요. 작업실 벽에 씌어 있는 낙서까지 전부 촬영해요. 그러니 아들이나 부인의 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죠.

**김철호** “사실 구술사는 우리가 정한 ‘스토리’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정 주제를 잡았지만,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도 많이 모이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역사인 것 아니에요?”

**강민기** 구술자가 질문의 요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실 때, 어느 단계까지 듣다가 끊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생애사가 아니고,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술자를 만나는 것이



잖아요. 대답의 내용이 이번 주제와는 그다지 관계없지만, 구술자를 연구하는 데나 그 시대를 연구하는 데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일 때. 저는 너무 강하게 주제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한정된 시간에 정해진 주제를 끌어내야 할 때가 항상 부담이 됐어요. 제 나름의 결론을 얻기도 어려웠고요.

**신수경** C 선생님은 주제와 관련된 답변도 굉장히 충실히 해주셨지만, 동료 분들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하면, 한 분 한 분 짝 옮겨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야사 수준이에요. (웃음) 개인적으로 재밌긴 한데, 과연 자료로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김철호** 야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신수경** 네, 그런데 저희 주제에서는 벗어났죠.

**김철호** 아니, 다들 주제에 너무 강력하게 집착하시는데, 사실 구술사는 우리가 정한 '스토리'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정 주제를 잡았지만,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도 많이 모이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역사인 것 아니에요? 주제에 안 맞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야사라고 하지만 그 야사 속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후에 정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민기** 처음부터 주제를 융통성 있게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사전 회의할 때나 연구계획서 세울 때도 주제를 상당히 명확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자가 다른 얘기할 때 그냥 방관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전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김철호**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생애사에 기반을 둔 연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같은 질문을 해도 객관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 생애가 녹아들어간 질문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무턱대고 “일본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면 아무 얘기도 안 나오죠. 우회적으로 그분의 경험이 녹아든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사를 통해서도, 가령 이분이 어떤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요. 결국 구술자의 어떤 얘기에서든지 주제를 내포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현재의 한국 미술사에서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자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심도 있게’라 함은, 지금까지 한국 미술사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좀 캐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주제 외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수집하는 게 진정한 우리의 참 목적이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박수)

2008년 7월 21일 오후 4시~8시 아르크예술정보관 세미나실에서